



지난해 전체시장 10%로 성장기반 마련, 2002년 디지털복사기의 춘추전국시대 예상

복사기 시장의 동향 및 전망

지난 2001년 복사기 총 시장은 IMF 이전 수준은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으나 디지털복사기는 전체시장의 10%를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여전히 아날로그복사기가 각 메이커들의 가장 두터운 구매층을 이루겠지만 2002년에는 무엇보다도 디지털복사기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글/(주)데이콤 옥재진 과장

2001년 복사기 시장 동향 디지털복사기의 본격 성장 기반 마련



21세기 초반 최대의 화두는 Digital이 아닐까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꽃을 피우게 된 Digital이 인간의 삶의 패턴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이 궁극

적으로 적응하고 지향해야 할 시대의 조류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복사기 업계의 지난 2001년 최대의 이슈는 Digital복사기의 약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은 IMF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IMF의 여파와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제불황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 정상적인 소비심리를 억제하고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이 끝나 그나마 설비투자 등이 다소 이뤄졌던 2000년과 달리 2001년 복사기의

총 시장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

다만, 복사기의 총 시장은 2000년의 90,000대 수준에서 2001년에도 역시 같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 IMF 이전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Digital이라는 시장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Digital복사기는 전년 대비 약 120% 가량 신장한 9,000대 이상이 판매됨에 따라 전체시장의 약 10%대의 시장규모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Digital복사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복사기시장의 주력 품목은 아날로그 복사기이다. 15~30매의 중·저속 아날로그 복사기들이 시장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 Grade의 판매는 꾸준히 이뤄져 100만원~200만원대의 복사기가 각 메이커의 주요(전략모델)품목이자 가장 두터운 구매층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복사기 시장 전망

2001년 대비 5~10% 수준의 성장 예상

각 메이커 역시 2002년 전체시장을 약



100,000대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 2002년의 시장은 2001년과 비교하여 괄목할 만한 신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2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올해에는 특히 지방선거, 월드컵,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경제불황과 국내 경기의 침체를 어느 정도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와 Digital복사기가 어느 정도 프린터 시장을 잠식할 것인가가 복사기 시장 성장성에 민감한 주요요인이 될것이다.

2001년 시장의 10% 정도의 시장 규모를 차지하면서 성장기에 접어든 Digital복사기가 2002년에는 총 시장 100,000대 규모에서 약 15,000대~20,000대 수준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 부분에 있어 메이커에 따라 상당한 예측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Digital 시장에는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대망의 2002년.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큰 국가적 행사들과 함께 우리 OA업계는 또다시 Digital이라는 큰 변화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2년에는 Digital복사기의 조달청 등록이 예상된다.

OA기기 시장에서 관공서의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달청 등록 또한 Digital복사기가 시장을 확대 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이제 각 사는 Digital복사기의 풀 라인업(Full Line-up)을 모두 갖추고 2002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Digital복사기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각 사의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2001년에 비해 유통 가격이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아날로그 복사기 시장은 예년과 비교해 특별한 이슈없이 비슷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며, 아날로그 복사기의 절대 판매 대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모 경쟁에서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아날로그 복사기는 기존 복사기의 교체가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과 마찬가지로 저가 모델들을 대상으로 각 사에서 펼치는 캠페인이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복사기 시장의 최대 이슈

디지털기기의 춘추전국시대 예상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2년도 시장의 중요 이슈는 Digital복사기인만큼 2002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를 몇 가지 들자면

첫째, Digital복사기 선발업체간의 선두경쟁이다.

Digital복사기에 관한 한 2001년까지 아성을 지키고 있는 한국후지제록스의 선두자리 지키기와 아날로그 복사기 전체시장 40%를 웃도는 M/S를 확보하고 있는 신도리코의 Digital 부문에서의 자존심 회복, 롯데캐논의 공격적 영업 등이 예측되는 가운데 선발사가 얼마만큼 Digital 시장을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시장규모가 상당히 좌우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후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다.

이미 선발 3사외에 미놀타와 기술제휴로 대우통신에서부터 시장에 참여한 데이콤과 프린터 전문업체인 청호컴넷, 태흥IS, 거기에 대흥멀티미디어통신까지 후발업체들이 다수 사업에 동참하였고, 기존 프린터 업체들도 Digital복사기 부분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2002년은 Digital복사기에 있어 춘추 전국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우통신 시절부터 10년 이상 복사기 사업을 해왔던 데이콤 만이 아날로그 복사기와 Digital복사기가 Full-Line Up 되어 있을 뿐, 나머지 후발 업체는 거의 Digital복사기만 Line-up 되어 있어 Digital복사기에 전력을 다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이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대기업인 삼성이 Digital복사기 시장에 참여할 예정이라 한다. 과거에 이미 아날로그 복사기 사업에 참여한 후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다시 Digital복사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Digital복사기 시장의 향후 전망과 규모가 밝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Digital복사기에 대한 영업력과 기술력의 확보이다.

Digital복사기는 아날로그 복사기와 달리 이미 Solution 제안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복사기처럼 기계만 알고 영업하던 시대에서 PC환경과 Network환경 거기에 Software, 또한 Digital복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기기까지의 통합적인 지식과 응용의 지혜가 영업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사별로 꾸준한 교육으로 대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각 사별 본사직원에 그치지 않고 각 유통망까지 Digital 환경을 숙지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맺음말

Digital기의 본격적인 태동과 성장

시장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의 Digital복사기 성장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복사기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모든 업체가 예측하고 있다.

향후 국내 복사기 시장은 Digital복사기가 주도해 나갈 것이며, 다수의 공급업체들은 Digital 복사기의 시장확대와 M/S선점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쪼록 복사기 공급업체들이 제삼 각기식의 과도한 출혈경쟁은 자제하여 건전한 시장형성을 위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짧막뉴스

제 2회 레이저 안전 및 의료응용 전문기술 위원회 개최

레이저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제 2회 레이저 안전 및 의료응용 전문기술위원회'가 지난 12월 4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며 기계가공, 광통신 등 여러분야에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레이저 기술과는 별도로, 레이저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체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않는등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관련 사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그 대책마련을 위해서 열린 것이다.

이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재원 박사는 레이저 안전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검토와 제품 생산에 관련된 규격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 '미국의 레이저 의료 안전 교육'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한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레이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안전문제는 레이저의 강력한 광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도 실제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전체적인 레이저 시술기법은 미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국내 병원에 레이저를 이용한 특수한 선진 시술법이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레이저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며, 이에 대비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안전교육을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